



주 제:	“깨어 기도하는 삶”	“대림 제 1 주일 ”	2009년 11월 29일
복음 묵상:	[루가 21,25-28.34-36]	[예레 33,14-16]	[1 테살 3,12-4,2]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시기이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이 무서움과 공포의 날이 아닐길 준비하라고 하신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름이 곧 준비이다. 그렇다면 그날! 주님이 오시기로 된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은 예년에도 그랬듯이 그냥 지나갈 막연하고 알 수 없는 미래의 그날이 아니다. 말씀을 전해 듣는 바로 오늘이 그날이어야 한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이든 그날이 당당한 오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매일 매일의 삶이 타성에 젖어 있음에 놀라게 된다. 매일 바치는 기도 생활과 미사가 습관적인 행위였음도 보인다. 교우들과의 만남도 형식적이다. 또 보인다. 무표정한 얼굴로 성당에 앉아 있는 교우들의 모습에서 세상사에 찌든 고통이 보인다. 무슨 잘못이 그리 많은지 '사는 게 죄' 라는 어느 할머니의 고백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이들의 슬픈 모습이 보인다. 그런 교우들을 위해 매주 강론을 준비하면서 전국 교구지에 실려 있는 강론 말씀들을 살펴본다. 정말 감동이 없는 틀에 박힌 말씀들이다. 나도 그런 흐름에 동참하며 힘겹게 주일을 보내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더 힘이 있게 들려온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하고 외치신다. 더 이상 의욕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라도 살맛나는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온다. 더 이상 타성에 젖은 생활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 부족했던 것을 발견하는 만큼 속량의 시간이 가까워 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도록 당당하게 머리를 들자. 더 이상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마음과 생활로 머리를 들자. 미사에 오는 이, 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힘찼으면 좋겠다. (춘천 송병철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미사 및 특강 안내

- 성모 심신 미사; 12월 5일 (토) 오전 10시
- 손우배 요셉 신부님 (예수회) 대림 특강; 12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주제; 고독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간

대림시기 전례

대림시기의 각 주일의 주제 및 전례적 성격

대림 제 1 주일; 오실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

대림 제 2 주일; 구세주의 오심에 대비하여 회개하도록 촉구

대림 제 3 주일; 구세주께서 소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

대림 제 4 주일;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힘.

대림시기의 미사와 서움 일도의 기도문들은 주로 이사야 예언서와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구성,

+ 복음 [루카 21,25-28.34-3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1분 명상

♡"소중한 오늘을 위하여"♡ (박성철, '소중한 오늘을 위하여' 중에서)



세상은 좋은 일을 했다고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했다고
 꼭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꼭 그만큼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주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그에 합당하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세상은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꼭 노력한 그만큼의 성장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실패는 우리를
 부유하게는 만들지 않지만
 인내와 지혜를 선물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한 그만큼 세상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준다고..
 만일 오늘을 우리가 성실히 돌본다면
 세상은 우리의 내일을 돌볼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 사탕: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1 코린 16,13).”